



# FOMC 구성원들의 최근 발언 정리 (7/5기준)

김석환 |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

seokhwan.kim@miraeasset.com

DOVES

NEUTRAL

HAWKS

VOTERS

Board



**아드리아나 쿠글러**  
이사

(6/18)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말쯤 완화 정책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.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은 점진적일 것. 경제 활동 어느 정도 냉각 예상.



**리사 쿡**  
이사

(6/25)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2개월 인플레이션이 회복하다가 내년에는 더욱 급격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. 3, 6개월 인플레이션율의 하락은 험난한 과정.



**마이클 바**  
부위원장/은행감독

(5/21)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는 실망스러워.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 완화의 자신감을 높이지 못해. 제한 정책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이 필요.



**필립 제퍼슨**  
부위원장

(5/20) 현재 통화정책은 제한적. 향후 들어오는 경제 데이터, 전망 및 위험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해 결정할 것. 금리에 민감한 지출에 대한 수요 타격 예상.



**제롬 파월**  
의장

(7/2) 최근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재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. 데이터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줘. 그러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더 큰 자신감을 주는 데이터가 필요.



**크리스토퍼 월러**  
이사

(5/24) 중립 금리(r\*)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지만, 지속 불가능한 재정 지출이 이러한 추세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. r\*의 대응으로 10년 국채 금리 주목.



**미셸 보우먼**  
이사

(6/25)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인하는 2025년으로 옮겨짐. 현재 제안된 바젤III의 많은 부분이 변경될 것. 미래 리스크를 내다봐야.

FRB

FRB



**메리 델리**  
샌프란시스코

(6/24) 과도한 초과저축 대부분 소진되어 소비자 지출 둔화 예상. 시가 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디플레이션 요인이 될 것. 노동시장 좋아 보험성 금리인하 필요없어.



**라파엘 보스틱**  
애틀랜타

(6/27)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4분기에 1번의 금리 인하 예상. 상품 가격 상승 압력 낮아져. 서비스 기업은 가격 결정력 약화되고 있어.



**존 윌리엄스**  
뉴욕

(7/3) 중립금리(r\*)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통화 정책의 적절한 설정을 결정할 때 r\* 추정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됨.



**토마스 바킨**  
리치몬드

(6/18) 상품 가격 결정력 약화됐지만 서비스 가격 인상 압력은 여전히. 또한 주거비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아직 존재. 인플레이션 진전 지속과 확대가 필요.



**로레타 메스터**  
클리블랜드

(5/20)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생각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. 인플레이션 진전이 1분기에 정체된 점을 감안할 때 상당위험 커.

※ 24년 6월 말, 퇴임 예정

- # 차기 총재 선정
- 베스 해맥(Beth Hammack, 52세)
- 업무 시작은 8월 21일부터
- 오는 9월 FOMC에서 첫 투표권 행사

NONVOTERS

Alternate



**오스탄 굴스비**  
시카고

(7/2) 실물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를 확인.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동안의 경로를 계속 유지한다면, Fed 목표 수준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.



**패트릭 하커**  
필라델피아

(6/14)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거비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완고함은 여전히 우려 사항. 내 예상대로라면 연말까지 한번의 금리 인하가 적절.



**수잔 콜린스**  
보스턴

(6/18)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과민반응하는 것을 경계. 경제는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2%로 후퇴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일러.



**알베르토 무살렘**  
세인트루이스

(6/18)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는 수준인 2% 이상으로 정체되거나 상승할 경우 추가 긴축 정책을 지지. 몇 달 안에 노동 시장이 더욱 냉각 될 것으로 예상.



**로리 K. 로건**  
댈러스

(6/18) 중립 금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아마도 더 높을 것. 연체를 이 증가하는 것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나타내. 소매 판매 둔화는 경제 활동 냉각 암시.



**제프리 슈미트**  
캔자스시티

(4/12) 정책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인플레이션이 2% 목표를 달성할 궤도에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.



**닐 카시카리**  
미니애폴리스

(6/20) 경제 펀더멘털이 매우 견고하고 낙관적이지만 가정자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. 인플레이션을 2%로 되돌리려면 아마도 1~2년 정도 걸릴 것.